

비상경제장관회의

24-4-3

(공개)

- 국민과 기업의 상생·성장을 위한 -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2024. 2.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주요 추진과제	3
1.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3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4
3.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6
IV. 향후계획	8

I. 추진배경

□ (거시여건) ①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 ②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소득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증대

① (성장)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i)생산성 둔화, (ii)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감소세

- * (i)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p, 한국은행): [90년대] 2.1 [00년대] 2.0 [10년대] 0.6
- (ii) 65세 이상 인구비중(% , 통계청): ['23] 18.2 ['30] 25.3 ['40] 34.3 ['50] 40.1
- ☞ 잠재성장률(% , OECD): ['00~'07] 3.8 ['07~'20] 2.8 ['20~'30] 1.9

② (자산소득) 고령화 추세 감안시,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필요성 증대

□ (현황)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고
 표1, ROE, 주가도 저평가^{표1, PBR·PER} 경향 ☞ **코리아 디스카운트**

【표1】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ROE·PBR·PER('14~'23)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신흥평균	미국	일본	영국	선진평균
ROE(%)	7.98	13.58	11.48	12.80	11.08	14.85	8.34	9.62	11.55
PBR(배)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PER(배)	14.16	15.95	13.09	25.62	14.32	21.78	16.86	16.09	19.69

* 출처: Bloomberg / ** 현행 PBR·PER 기준

○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의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

* [예]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미흡한 주주환원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23.2월, 자본연)

➔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 필요

II.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 ◇ 이와 함께,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 「¹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²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³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중

<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과제 >

대상	추진방향	세부과제
인프라	¹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② 불법 공매도 근절 ③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투자자 (국민)	²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②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③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 ④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⑤ IR 강화 / ⑥ 금융교육 지속·확대
기업	³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주주 보호 강화* *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 자사주, M&A 등 관련 제도개선 ② 배당절차 개선 ③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④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기업혁신·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Ⅲ. 주요 추진과제

1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 (사전감시)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 강화

* 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시 제재(형벌·과징금) 감면('24.1월~)

** 건당 포상금 한도 상향(20→30억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기준금액 상향 등), 익명신고 도입 등('24.2월~)

- (사후제재)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24.1월~) 및 무관용·엄정 대응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행정제재 다양화* 추진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 엄정대응 기조 유지 +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 중, '23.5월~)

②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 (전수조사) 글로벌 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23.12월) 등 엄정대응 기조 유지

-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120% 이상 → 105% 이상) 등

- (처벌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 도입

※ 엄정대응 기조 유지 + 제도개선 초안을 토대로 '24.上 중 제도개선 방안 확정

③ 「진입-영업-퇴출」 3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 하위규정 완비 후 자본시장법 개정안('24.1월 개정) 차질없이 시행('24.7월~)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국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우리 증시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

1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 (외국인 ID)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 식별번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 허용*

*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 가능

- (영문공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 영문공시 의무화*(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법인, 대상 공시항목 등 단계적 확대 추진중

※ '23.12월(외국인 ID 폐지), '24.1월(영문공시)부터 개선된 제도 시행중

2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

- (시장개방)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 허용

- (개장시간) 현재 15시30분에 마감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익일 02시까지 연장('24.下)

※ '24.1월부터 시범운영 既개시 →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24.下 정식시행 계획

3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금투세 폐지)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인하) 0.15%('25)까지 증권거래세 인하(시행령 既반영)

*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p 포함, %):

['20년] 0.25 ['21~'22년] 0.23 ['23년] 0.20 ['24년] 0.18 ['25년] 0.15

○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신규유형 신설**

* [납입한도] 年2천만원(총 1억원) → 年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비과세한도 1천만원).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분리과세(14%) 혜택 적용

※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조특법(ISA) 개정안 발의('24.2월) 및 국회 통과 추진중

4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 (대체거래소[ATS]) 시장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 확정 후 '25.上 출범 추진

○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 마련, 제도화 추진

※ [ATS] '25.上 본인가 및 출범 / [비상장주식시장] '24.上 제도화 방안 발표

5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IR 강화**

○ (기관 투자자)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

* 외국계증권사가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형 기관투자자(국내외 주요연기금·펀드 등)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 제도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연례행사

○ (개인 투자자)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 강화

※ 기관·개인투자자 대상 IR 연중 지속(2월중 싱가포르 IR, JPM·MS 주최 국내 IR 등)

6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

○ 금융권과 협업하여 합리적 투자 관련 금융교육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공

※ '24.1분기 금융교육 집중 캠페인 전개(3월 OECD주간 활용), 연중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3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 조성

1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표2】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시행시기
물적분할 제도개선	물적분할시 ①공시 강화, ②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③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22.12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거래시 매매계획 사전 공시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24.7월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인수자에게 피인수기업 잔여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	정무위 계류중 ('23.5월~)
전환사채 제도개선	공시 강화,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유인 차단	제도개선 방안 발표('24.1~2월)
자사주 제도개선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	↓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M&A 제도개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 행위규율 마련,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성 제고 등 M&A 규제 합리화	등 개정 추진 (~'24.下)

2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 ☹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

○ (결산배당) 상법 유권해석('23.1월)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해졌으며('24년~),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지속 유도*

*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 의무화(지배구조보고서), 거래소·상장협 등의 안내·독려 강화 등

○ (분·반기배당)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23.4월~)

○ (배당정보공시)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23.12월~)

※ 배당절차 개선 관행 확산 독려(거래소·상장협 등) 및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23.4월~)

③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법사위 계류중)
 - * 모든 주주가 전자출석하는 '완전전자주총 방식'과 현장 또는 온라인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총 방식' 개최 허용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법사위 계류중)
 -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2.12월)으로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既도입
- (이사의 책임 강화)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 추진('24.下)
 - * 기회유용시 이사회 "사전" 승인 명시,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 명확화 등 검토
- (주주총회 내실화)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 추진('24.下)
 - * 현재 3개월인 주주총회 기준일 효력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단축 등 검토

※ 既제출 개정안은 21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추가 개정사항은 '24년중 국회 제출 목표

④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마련·추진(금일 발표)

- (상장기업)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ⁱ⁾하고, 인센티브⁽ⁱⁱ⁾ 제공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i)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하는 계획으로, 관련 원칙·절차·내용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ii)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지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거래소 공시 평가 우대 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5종 세정지원*, 기타 인센티브** 제공

* 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②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③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④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⑤ 가업승계 컨설팅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거래소 공시 평가 우대 등

○ (시장 평가·참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주요지표 비교 공표 등 시장의 평가·투자 지원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반영

○ (상장기업 지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거래소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 마련

- 거래소에 밸류업 전담부서·자문단(외부 전문가)을 신설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 제공

※ 2.26일 방안발표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등 순차적 시행

IV. 향후계획

□ 既시행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

□ 제도개선 방안 마련·확정 필요 과제*는 연내 마련·시행 추진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 적극 참여, 후속 절차 차질없이 진행

*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개선,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이 자본시장의 관행·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호흡으로 꾸준히 추진”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26

유 관 기 관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주식시장 현황	4
III.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운영방안	6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7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10
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12
IV. 향후계획	14
[참고1]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3
[참고2] 투자지표 설명	15
[참고3] 도쿄거래소(JPX)의 시장체계 개편 및 후속조치 현황	16
[참고4] 도쿄거래소(JPX)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권고 세부내용 ...	17

I. 추진배경

- (배경) 생산성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시장 분절화(market fragmentation)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추세*

※ (총요소생산성)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90년대 2.1%p에서 10년대 0.6%p로 급감(한국은행, '23.12월)

※ (고령화) OECD 주요국 분석 결과, 노동연령 인구(30-64세) 1%p 감소시, 경제성장률 0.38%p 감소하는 추세(국회 예산정책처, '21.12월)

※ (분절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교역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GDP 0.3~2.3% 감소 가능성(IMF, '23.6월)

-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긴요한 시점이며,
 -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
-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고^[표1, ROE], 주가도 저평가^[표1, PBR·PER]되는 경향 ⇨ [코리아 디스카운트](#)

[표1]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ROE·PBR·PER('14~'23)

구 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신흥 평균	미국	일본	영국	선진 평균
ROE(%)	7.98	13.58	11.48	12.80	11.08	14.85	8.34	9.62	11.55
PBR(배)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PER(배)	14.16	15.95	13.09	25.62	14.32	21.78	16.86	16.09	19.69

* 출처: Bloomberg / ** 현행 PBR·PER 기준

➔ 규제개혁·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structural) 대응과 함께,

-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 필요

□ **(경과)**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3가지 방향의 일관된 제도개선 추진중

- ① **(인프라)**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② **(투자자)**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과 함께,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③ **(기업)** 배당절차·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배당절차] 배당권리자 확정 전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도록 하여,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
[물적분할]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내부자거래]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 마법) 금지 및 공시 강화

□ **(평가)**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중요하다는 평가*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

- **(자본연, '23.2월)**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미흡한 주주환원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
- **(OO증권, '24.1월)**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 **(△△증권, '24.2월)**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주주환원 모멘텀 등의 복합적 작용 필요

-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 이를 시장에 적극 설명·소통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

< 기본방향 >

- ◇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 ◇ 이와 함께,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 「¹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²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³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중

<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과제 >

대상	추진방향	세부과제
인프라	¹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② 불법 공매도 근절 ③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투자자 (국민)	²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① 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등 ②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③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 ④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⑤ IR 강화 / ⑥ 금융교육 지속·확대
기업	³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① 일반주주 보호 강화* *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 자사주, M&A 등 관련 제도개선 ② 배당절차 개선 ③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④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기업혁신·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II. 주식시장 현황

◇ 우리 주식시장은 양적성장에도,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

□ (규모)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 성장하며,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인프라로 기능

① (시가총액) '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

- GDP 대비 시가총액도 116.2%로,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

[표2] 주요국 시가총액(조원), GDP 대비 시가총액

구 분	신흥				선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영국
'23년말 시총	2,558.2	2,679.7	12,349.8	5,437.0	65,334.9	8,077.9	4,000.1
(시가총액/GDP)	(116.2%)	(221.0%)	(57.1%)	(90.8%)	(166.4%)	(123.1%)	(113.2%)
연평균증가율	+7.0%	+8.4%	+11.0%	+13.9%	+8.5%	+3.1%	△2.6%

* 출처: Bloomberg-IMF, 한국은 거래소, '23.12월말 환율로 환산(₩1,294.53/\$)

② (상장기업수) '23년말 한국 주식시장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 수준(미국·중국·인도·일본·캐나다·홍콩·한국 順)

- 최근 10년간 상장기업수 증가율도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

[표3] 주요국 상장기업수(개)

구 분	신흥				선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영국
'23년말	2,558	1,823	5,107	6,819	5,704	3,935	1,853
연평균증가율	3.5%	1.8%	7.5%	△0.1%	1.6%	1.4%	△3.0%

* 출처: WFE, 영국('23.11월말)·인도('22.12월말)는 각국 거래소 / # 유가+코스닥(스팩·리츠 등 포함)

□ (시장평가)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순자산(PBR) 또는 순이익(PER) 대비 주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

① (PBR) '23년말 1.05, 10년 평균 1.04로, 순자산(자본)의 장부 가치 수준에서 주가 형성

* 현행PBR 1미만 기업수('23년말 기준): 코스피 526개(65.8%), 코스닥 533개(33.8%)

② (PER) '23년말 19.78, 10년 평균 14.16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저평가

[표4] 주요국 현행 PBR·PER(배)

구 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신흥 평균	미국	일본	영국	선진 평균
PBR	'23년말	1.05	2.41	1.13	3.73	1.61	4.55	1.42	1.71	3.10
	10년평균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PER	'23년말	19.78#	19.93	11.61	28.61	15.32	23.68	16.52	11.02	20.23
	10년평균	14.16	15.95	13.09	25.62	14.32	21.78	16.86	16.09	19.69

* 출처: Bloomberg / # '23년의 경우, 분모(당기순이익)가 감소하며 높은 PER(시가총액/당기순이익) 기록

□ (저평가요인)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가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

① (ROE)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ROE(8.0%)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본 생산성이 낮음을 시사

② (배당성향) 배당성향(10년평균 26.0%)도 낮은 수준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도 미흡

[표5] 주요국 ROE·배당성향(%)

구 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신흥 평균	미국	일본	영국	선진 평균
ROE	'23년말	5.2	12.5	9.8	12.8	10.8	17.7	8.6	15.9	14.3
	10년평균	8.0	13.6	9.3	13.8	11.1	14.9	8.3	9.6	11.6
배당성향	'23년	40.5#	57.6	30.5	64.7	45.2	37.1	36.2	42.5	42.2
	10년평균	26.0	55.0	31.3	38.5	39.6	42.4	36.0	129.4	49.5

* 출처: Bloomberg / # '23년 분모(당기순이익)가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기록

➔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성장에 걸맞는 평가를 받으려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

III. 기업가치 제고 지원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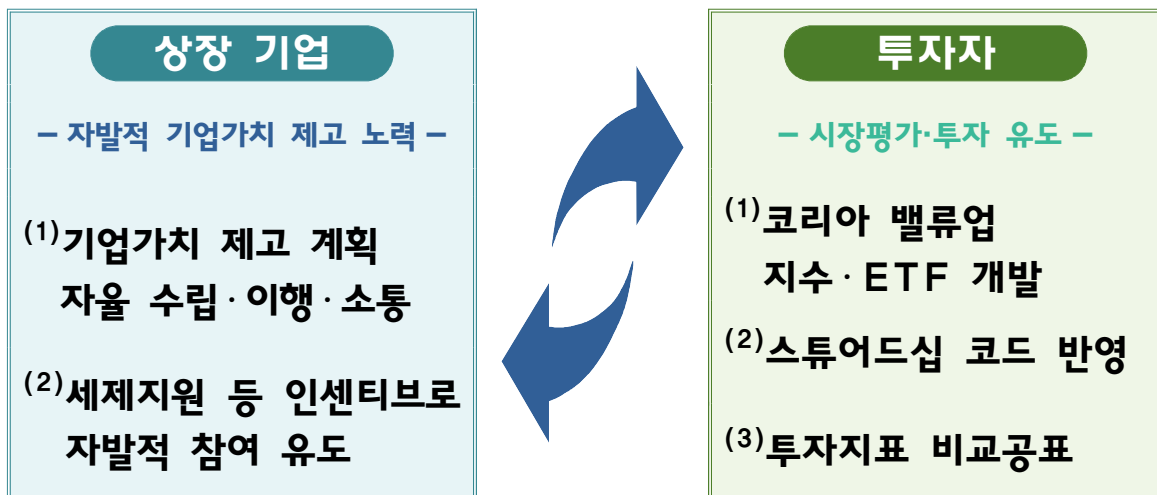
※ 日도쿄거래소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 및 참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 강화

* 「Action to Implement Management that is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 기본 방향 >

- ◆ 상장기업이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소통**」하는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
- ◆ **주주가치 존중** 기업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적극 지원
-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발전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자발적 변화**를 통한
한국 증시의 도약



거래소 및 유관기관

- 체계적인 상장기업 밸류업 확산 지원 -

- (1) 전담 추진체계
- (2) 상장기업 교육·컨설팅
- (3) IR·소통 강화

1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 확산 지원 →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발전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소통

[개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23말 코스피 809사, 코스닥 1,598사)
- (개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①기업가치 현황을 평가·분석*하여, ②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③주주와 소통

* 기업상황에 적합한 지표(자본비용·자본수익성·시장평가 등)를 다면적으로 활용

[가이드라인]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제공

※ 이하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2차세미나·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추후 확정

- (기본원칙) 상장기업 ①스스로가 ②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③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이행
 - ①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
 - ② 중·장기 자본효율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
 - * 기업 성장전략 등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실행방안에 중점
 - ③ 가이드라인은 종합적 작성 지침에 해당하며, 각 기업이 특수성·경제여건·업종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공시
- (이사회 역할)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기재내용)**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

- ① **(현황진단)** 기업의 자본비용·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절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
- ② **(목표설정)** 현황진단에 기반하여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 이상) 목표수준·도달시점 등 설정
- ③ **(계획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방안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목표-계획 간 연계성을 설명
- ④ **(이행평가·소통)** 계획 이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주·외부투자자와의 소통* 및 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
 - *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소통강화 등을 포함
 - 매년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 수정

□ **(공시방법)**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

- 연 1회가 기본이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이행 평가를 포함 (계획 등 변경시 연중에도 추가 수시 공시)
- 해외 투자자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영문 공시도 적극 권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 기재**

* '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2.末 488사) → '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URL과 함께 주요 공시내용 등을 요약 기재

[시행] 5월 2차세미나 → 6월 가이드라인 확정 →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

□ **(시행시기)** 2차 세미나(5월)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

*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음

※ [요조치사항]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24.上)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4.上)

(2)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IR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

- **(세제지원)**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표창)**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
 - * 예)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
 -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 *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 개최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 희망기업 대상으로 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기회 제공
- **(평가우대)**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 제공

[안내·분석] 공시여부를 투자자에 안내하고, 매년 5월 백서 발간

- **(공시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및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하여 거래소 홈페이지에 일목 요연하게 안내
- **(백서발간)** 매년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제 투자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분석(‘25년~, 거래소)
 - 밸류업 경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사유, 우수 공시·이행 사례 등을 전파·확산

※ [요조치사항] 세제지원안 마련(‘24年中), 평가 우대(‘24년말), 거래소 홈페이지 개편(‘24.上), 표창 신설(‘25.5월), 백서발간(‘25.5월~)

2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 기업가치 개선노력과 성과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본시장의 환류기능 강화

(1)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 **(목표)**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에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코리아 밸류업 지수"]
- **(특징)** 주요 투자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 구성
 - *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
 -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
 - * 수익성·시장평가 양호 기업 ** (예)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 **(활용)**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
- **(계획)** 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지수 개발(24.3분기)·ETF 출시(24.4분기)

※ [요조치사항] 거래소 지수 개발(~24.9월), ETF 출시·상장(~24.12월)

(2)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연기금 등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도록 지침화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 및 관련원칙 >

- **[개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우리나라는 '16.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 총 7개 원칙)
- **[관련원칙 -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요조치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24.上)

(3)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각 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제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23말 코스피 809사, 코스닥 1,598사)
- **(공표내용)**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고,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 비교제공**
 - 분기별로 **PBR***·**PER***·**ROE**(5월초, 6·9·12월말)를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배당수익률**(5월초)은 연 1회 공표
 - * [참고] 선행 PBR·PER이 아닌,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PBR·PER**

< 주요 투자지표 설명 (☞ 참고2, 15p) >

- **PBR**(시가총액 ÷ 순자산) : 순자산에 대한 **주가수준**으로, 1 미만은 저평가로 인식
 - **PER**(시가총액 ÷ 순이익) : 순이익에 대한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 **ROE**(순이익 ÷ 자기자본) :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판단
 - **배당성향**(배당금 ÷ 순이익) :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주주환원 정도** 파악
 - **배당수익률**(배당금 ÷ 주가) :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 **(공표방법)** 시장별(코스피·코스닥), 업종별*(23개)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 제공
 -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분류(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금융서비스 등)

※ [요조치사항] 거래소 시스템 개발('24.上, 6월부터 개시)

3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 → 중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보완·발전

(1) 전담 추진체계 마련

상장기업·시장·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업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1부 2팀) 신설('24.2월)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분석 업무, 자문단 지원,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 등 총괄
 - *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대표기업 등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지원
- **(자문단)**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 구성('24.3월)
 - **(구성)** 상장기업(IR 담당자), 전문가(애널리스트, 연구원·학계), 국내외 투자자(국내외 IB·운용사, 핀플루언서), **유관기관**(상장협·코스닥협회) 등
 - **(기능)**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업데이트, 밸류업 정기 평가보고서* 검수(우수사례 검토), **시장반응 수렴**
 - * 직전연도 1년간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분석·평가
- **(통합홈페이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 구축
 - **(방안)**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탭 신설
 - *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 게시
 - **(기능)**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 투자지표, 우수사례 집적 등 **아카이브 기능**과 기업별 공개여부, 우수법인 공표 등 **홍보기능**

※ [요조치사항] 전담부서 구성('24.2월), 자문단 구성('24.3월), 홈페이지 구축('24.6월)

(2)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공시 교육, 1:1 컨설팅 및 번역지원 등을 통한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

- **(공시교육)**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전체 상장기업 대상 공시 의무교육* 프로그램 內 밸류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전파('24.6월)
 - * 공시 담당 임원은 매2년마다 4시간 이상, 담당 직원은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이수
- **(컨설팅·번역 지원)** 중·소규모 상장기업* 대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지원('24.6월)
 - * (예) 시총 1천억원 미만[23년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24%, 코스닥 상장사의 48%]
 - **(컨설팅)** 업종 특징을 반영한 분석대상 지표 선정방법, 기업 공시사례에 대한 자문단 피드백 안내 등
 - **(영문번역)**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나, 영문 공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 대상 영문번역 지원**
 - * 지원 희망기업 중 국문 계획의 충실성 등을 반영(자문단 평가 등)하여 선별
 - ** 전문 번역기관 영문번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거래소가 전액지원

※ [요조치사항] 공시교육 및 컨설팅 시행('24.6월~),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24.6월~)

(3) 참여유도를 위한 IR 지원 및 소통 강화

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투자자 의견을 듣기 위한 상장기업 공동 IR 등 확대

- 기업 가치제고 계획과 이행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 홍보하기 위한 IR을 지원
 - **(공동 IR 지원)** 희망기업 중심으로 거래소·유관기관 주관 “기업 밸류업” 공동 IR* 개최
 - * (참여)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자문단 선정기업 등

- (온라인·해외 홍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 마련* 및 해외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반투자자 대상, 유명 핀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유튜브 제작 등을 추진

** 상·하반기 각 1회

주기적 상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유도 지속

-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 지속 개최

* 배당절차 개선 이행,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 공시 등

** [거래소] 업종·기업규모별 그룹화하여 연중 개최

[상장협·코협] 밸류업 지원방안 인식제고 등을 위한 CEO·CFO 간담회 지속개최

※ [요조치사항] 온라인·해외 홍보('24.3Q~), 공동 IR 개최('24.4Q~), 상장사 간담회('24.上~)

IV. 향후계획

2.26일 거래소 주관 1차 세미나를 통해 지원방안 공개 및 의견수렴

- (세미나) 2.26일, 거래소·자본연·상장협·코스닥협이 공동 주최하는 1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개

5월 2차 세미나 개최,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등 순차적으로 시행

- (가이드라인)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추진
- (시행) 전담 추진체계 마련(2월), 홈페이지 구축(6월),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하반기~), 지수(3Q)·ETF 개발(4Q), 백서발간·표창(매년 5월) 등

➔ 기업경영 관행·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업 대상 안내 강화 및 지속적 제도보완 ☞ 긴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

참고2

투자지표 설명

: 분기별 공표

: 연1회 공표

투자지표	산출기준
PBR : 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	시가총액 :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 <hr/> 순자산 : 최근 분기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자기자본)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 재무상태 대비 시장평가 판단에 참고가능 - 특히 1 미만일 경우, 회사 청산시 주주가 받게 되는 자산가치보다 현재주가가 낮다는 뜻이므로 통상 저평가 상태로 인식 	
PER : 주가이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시가총액 :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 <hr/> 순이익 : 최근 4개 분기 합산 (ex. '24.9월 공표시 '23.3Q - '24.2Q 순이익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이익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 수익성 대비 시장평가 판단에 참고가능 	
ROE :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순이익 : 최근 4개 분기 합산 (ex. '24.9월 공표시 '23.3Q - '24.2Q 순이익 합계) <hr/> 자기자본 : 최근 1년 평균 기준 (ex. '24.9월 공표시, '23.6월말과 '24.6월말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판단하는 지표 →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경영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 	
배당성향 (Dividend Payout Ratio)	배당금 : 최근 사업연도 기준 <hr/> 순이익 : 최근 사업연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의 비율로 주주환원 관련 참고지표 -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줌을 의미 	
배당수익률 (Dividend Yield)	배당금 : 최근 사업연도 기준 <hr/> 시가총액 : 공표 직전일 종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주가로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할 경우의 배당수익을 가늠하는 지표 	

□ **(개요)** 도쿄거래소(이하 'JPX')는 '22.4월 「시장체제 개편」*을 단행

* 5개 시장을 3개 시장[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으로 통합개편 + 상장·유지
요건 강화('25.3월부터 적용예정)

○ 이후 시장체제 개편사항의 원활한 정착 및 기업가치 상승
을 통한 투자처로서의 매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중

□ **(추진경과)** '22.7월부터 '팔로업 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과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논의 진행중

* 학계·업계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과제발굴·필요조치 검토 등

○ '23.3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포함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 JPX 추진과제 주요내용 >

1	자본효율성· 주가를 고려한 경영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 대상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 공시하도록 요청 (☞ 참고5, 26p)
2	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	Comply or Explain 제도의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 대상 개별 지도 등 보완 요청 등
3	주주와의 대화 강화	투자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독려 - 특히, 프라임 상장법인 대상 의사소통 내용의 공시를 요구
4	영문공시 확대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확대 독려 - 특히, 프라임 상장법인 대상 추후 개별 지도 예정(프라임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의무화는 '25.3월 이후 실시예정)

○ 한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독려를 위해 신규지수(JPX Prime 150
지수) 출시('23.7월) 및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24.1월)

< JPX 프라임 150 지수·ETF 개요 >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JPX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자본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시총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선정) · [종목구성] ①자본효율성 상위 75 종목(판단기준 : ROE) + ②지속가능성 상위 75 종목(판단기준 : PBR 및 시가총액)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ifree JPX prime 150 ETF · [운용사] 다이와자산운용 / · [AUM, '24.1월말] 약 107억엔(약 961억원)

- **(목적)** 자본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

* 자사주 매입, 배당확대 정책만을 채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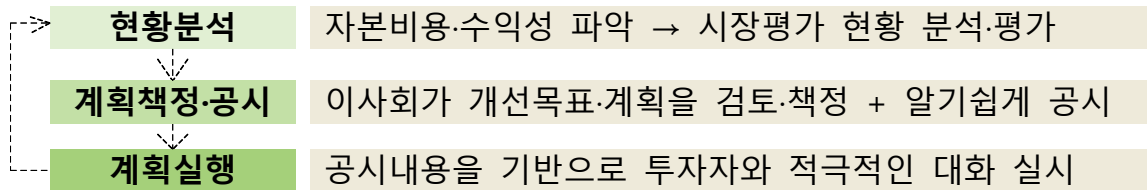
- **(대상)** 프라임·스탠다드 쏘 상장법인*

* PBR 등 특정 투자지표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지 않음

- **(권고내용)** 주가·자본효율성을 고려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현황분석 → 계획수립·공시 → 실행」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

* 자율사항이며, 연 1회 이상 공시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안내

< JPX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안내사항 세부내용 >



- **(양식)** 별도 양식이 없으며, 경영전략·계획·재무실적 발표 자료, 홈페이지 등에 포함하는 등 자율적으로 공표*하도록 안내

* 단, 투자자가 공표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접근방법(웹사이트 URL 등) 등을 기재하도록 요청

- **(공시시기)** 정해진 시한은 없으나, 최대한 빠른 대응을 요청

- 주요 변동사항 발생시 공시사항의 즉각적인 업데이트 필요

- **(페널티 여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으로, 계획 미공시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상장폐지 등) 없음

※ '24.2월 투자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업 공시내용 중 참고 사례 및 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배포

* PBR이 1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선계획의 도출이 필요없다는 결론 지양, 매출·영업이익 분석에 그치기보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익성 분석 필요 등